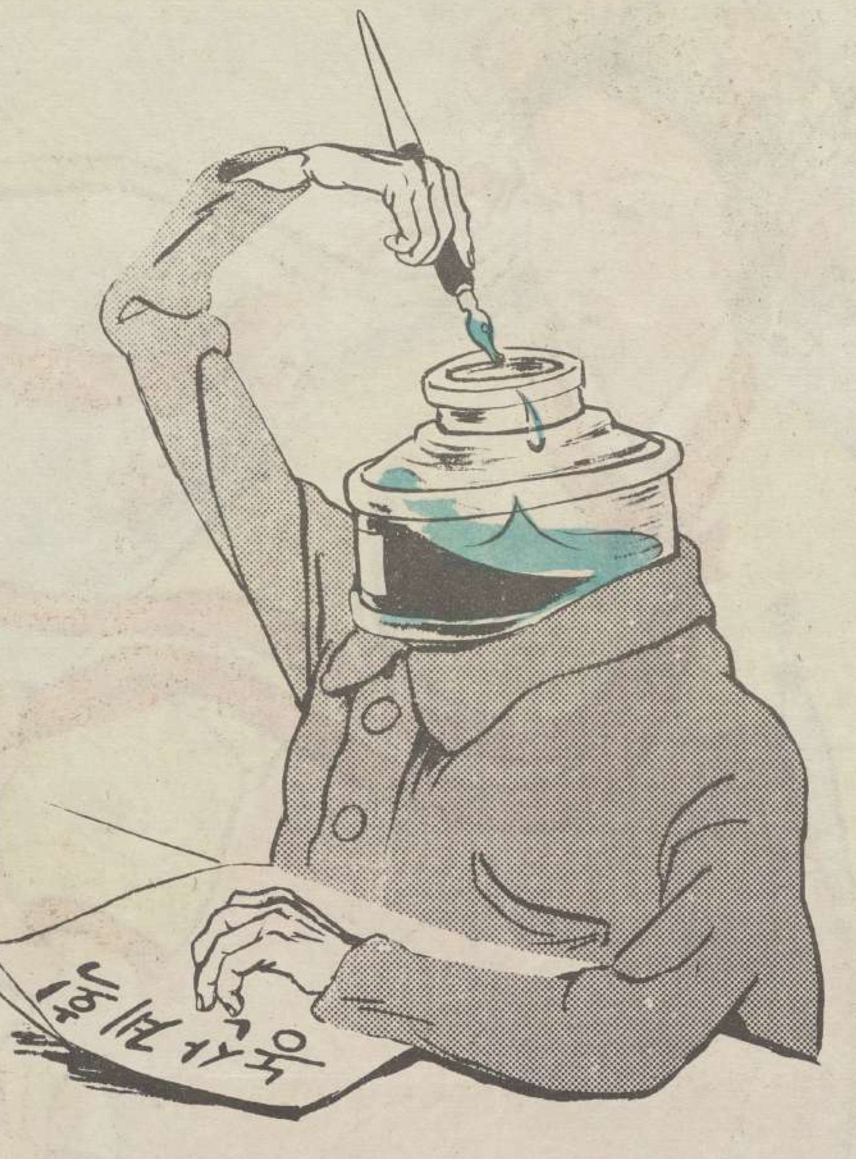
화살

1960년 3월 하반호 (122)

허 능택 그림

3-APR 11
1961

주관주의자 계획 세운다



연산군 지도 일'군들은 군중에게 의거하여 사업하지 않음으로써 1960년도 농산 계획 수립을 비롯한 많은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범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생활을 담지 못한 《계획》

함북도 화대군 불로리 농업 협동 조합의 벌에서도 훈훈하고 향기로운 김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머지 않아 대자연의 들끓는 생활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김이…

그런데 관리 위원장은 집안에서 속절 없이 낡은 문서장만 뒤지면서 무엇인가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책상 우에 턱을 받치고는 작년 일을 다듬어 보기도 하였다. 《작년에는 6월달까지 다섯번씩 뜯어 고친 생산 계획이 서류장에 파묻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관리 위원장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더듬고 있는데 통계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원장에게 말을 던졌다.

《위원장 동무! 우리 조합에서 일이 자꾸 처지는게 까닭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까닭이라니?》

《글쎄 조합 일이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것 저것 혼란만 생기게 되니 말입니다.》

《하— 답답한 친구라구… 조합이 사람이 많아지구 생산 수단도 많구 경리 부문이 복잡해졌으니 그야 뻔한 일이 아니겠소?》

통계원은 관리 위원장이 하는 말을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작업반들의 로력 가동 정형과 5일 계획 실행 통계표를 내여 밀었다.

《무엇? 가동률이 59%? 거름 생산과 반출에는 5% 밖에?》

아니 전번 어느 날인가 3월 초순까지는 장만된 거름은 몽땅 내갈 수 있다구 장담하질 않았소?》

《그거야 몇 사람이 앉아서 주먹 구구로 마련한게구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법적 계획이야 아니였습지요.》

관리 위원장은 듣기가 역해서 머리를 쓰러 넘기며 화를 내였다.

《그럼 며칠 전에 1 작업반에서 생산했다는 2,200 톤과 3 작업반에서 했다는 2,000 톤의 거름도 전탕 허풍을 쳤단 말이요?》

《글쎄 올시다. 관리 위원회에서 생산도 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보고를 하라고 성화를 먹이길래 하두 딱해서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한게 랍니다.》

《그럼 로력일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그건 생산량에 기준하다 나니 실적은 없었지만 상부에 보고할 수'자에 〈엄격〉히 립각 했답니다.》

관리 위원장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이따우 흉한 놀음을 하다간 나종에 관리 위원장을 허풍'군으로 만들어 버리겠소》

관리 위원장은 이렇게 쏘아대다가 속으로 웃었다.

《그러기에 뭐랍데까? 강서군 청산리 당 총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말씀대로 영농 준비에서 지난 결함을 잘 총화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두 그것을 명심 안하고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나가니까 그럴 수 밖에야…》

《아니 그럼 우리 조합이 계획이 없이 일하고 있소? 알곡이 작년 보다 곱절이구 소채는 다섯 곱절이나 높은 생산 계획이 뚜렷이 서 있지 않소?》

이러는 판에 군 인민 위원회 농업 기술 부장이 내려 왔다.

부장은 관리 위원장으로부터 영농 계획서를 받아 들고 한 가지 두 가지 따져 가면서 이야기하였다.

《작년에 3만 공수의 로력이 조합일에 참가 못한 것, 제초 시기에 신답을 푸느라구 73 정보의 발을 묵이게 된 사정을 참작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많이 참작하구 수정도 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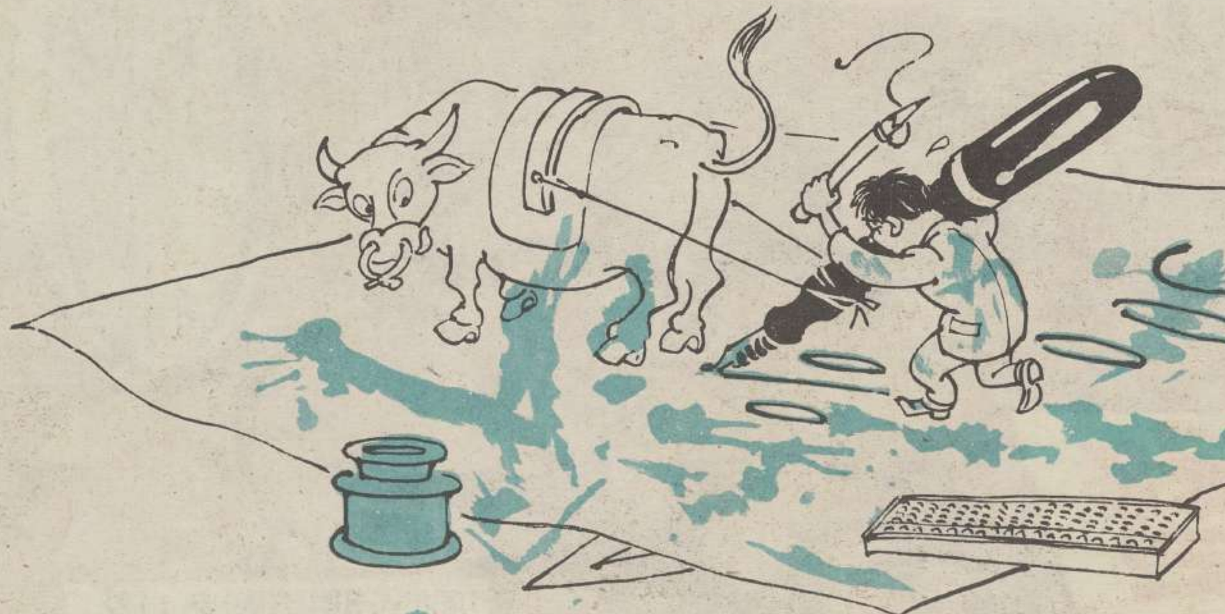
《아니 불로리 경지 면적과 지목에는 많은 변동들이 일어 나지 않았소? 이런 현실을 덮어 두고 무엇을 참작했단 말이요? 그런데다 작물 배치와 농작물 생산 계획을 원금으로 세웠으니 거기에서 혼란 밖에야 생길게 있소?》

관리 위원장은 조합 살림을 항상 과학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때만이 일은 뒤끄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지 머리를 푹 숙이고 말았다.

서 득창

지상 공문

책상 머리에서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생산을 높일 수 없다. 종이 우에다 연필을 가지고 수'자를 높이 세워 쌀을 많이 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한다.



최 영근 그림

뿌리 박은 《지도》

일부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은 직접 협동 조합에 내려 가서 사업을 조직 집행하지 않고 사무실에만 매달려 있는 현상이 있다.

최 영근 그림

낡은 장난감

삐악이

삐—악 삐악
속은 볐는데
소리만 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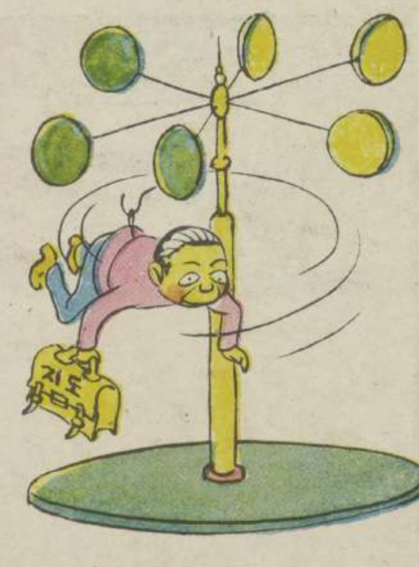
고리 던지기

던져도 던져도
까딱도 않는
속심은 나무라네

량면 오뚝이

량면 오뚝이
오뚝 오뚝
상급 보고 꿉벅
하급 보고 에헴

바람개비



뺑 돌아 한 바퀴
뺑 돌아 두 바퀴
바람이 부는 대로
동—서—남—북

송 용남 그림

봄 아가씨는 기다리는데

태탄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밭갈이 때가 다되였는 데도 농기계들의 부속품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의 가동률이 낮은 형편에 있다.

조 명식 그림

밥 먹고 죽벌이

국영 신계 농장 지배인은 축사도 사료도 준비하지 않고 덮어 놓고 400두나 되는 돼지를 종자 돼지로 모아 놓았다. 그것은 생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많은 돼지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폐사시키는 때에는 생산된 고기의 원가가 얼마나 높아지겠는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축사 수의 절반 가량이 비가 새서 돼지들은 발목까지 빠져 진탕 투성이를 해가지고 오돌오돌 떨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이렇게 떠는 돼지들을 보고 불만스레 하소연 했다.

《이놈의 짐승들아, 왜 그렇게 먹이는 데도 살이 못 찌느냐!》

그러나 가축들은 지배인의 원대로 살이 찌기는 커녕 수없이 죽어 갔다. 그러면 지배인은 수의사들을 추궁했다.

《병이 나서 죽어갈 때에야 주사를 놓으니 왜 죽지 않겠소?》

《많이 죽는 원인이 치료가 늦은 데도 있지만 예방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 흐름식 관리를 하니 책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농장에서 하고 있는 《흐름식 관리》란 어미 돼지를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담당한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넘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 주는 사양 방법이였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부터 돼지가 새끼 낳는 률이 줄고 병나는 수'자가 늘어 났었다. 지배인이 관리공들에게 추궁하면

《그 돼지는 원래 병들어 가지고 넘어 온 놈인데요》 하고 서로 책임을 밀었다.

비를 맞아 물에 빠졌다 나온 것 같이 최최해서 떨고 있는 새끼 돼지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도 지배인은 애원했다.

《너희들이 죽으면 우리가 국가 과제를 못하게 되니 나를 봐서라도 제발 죽지 말아다오》

그러나 가축들은 그런 조건에서 지배인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 견디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지난 해에 숫한 돼지가 폐사되여 거기에 들인 사료비와 품값이 생산된 고기에 모두 덧붙게 되였으니 고기 값보다도 원가가 더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사료들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돼지들이 살이 못찌는 모양입니다.》

분장장들이 지배인의 물음에 대답한다.

고기의 원가를 낮추려면 값싼 자연 사료를 많이 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배인은 생산만 생각하고 원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 그래 옥수수를 제초기로 김을 맬 수 없게 보리 뿌리듯 해서 김을 제대로 못맨 결과 종자 값과 품값도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지만 지배인은 원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럼 농후 사료를 더 주우, 그러문야 살이 찌겠지》 하고 지시했다. 그래서 분장들에서는 값비싼 농후 사료를 소요량의 거의 두배나 먹였다.

로력의 부족을 느끼는 원인도 많은 사람들이 도급제에 참가하지 못하고 기계화 수준이 낮은 데서 로력을 국가 기준대로 쓰면서도 생산 능률이 오르지 않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원가는 생각지 않고 로력이 모자란다고 제기하면 척척 선심을 썼다.

《로력을 더 줄테니 생산만 많이 내오》

그래서 분장들에서는 원가는 어떻게 되건 로력만 디립다 불쿠었다. 지어 직속 번식반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이 기를 돼지를 다섯 사람이 기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사료와 로력을 많이 들인 가축들이 허다히 죽은 데다 또 로력과 사료를 국가 기준보다 몇 배나 더 들이다 나니 원가가 고기 생산액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였다.

년말이 되였다. 지배인은 부기장을 불렀다.

(지난 기간에 로동자들의 로임이 157,2%나 장성했으니 리득도 많이 났겠지)

지배인은 흡족하여 부기장에게 물었다.

《금년엔 상금을 얼마나씩 줄 수 있을 것 같소?》

부기장은 아래를 내려다 보며 얼마 동안 망서리다가 무안한듯 주저주저 대답했다.

《금년엔 아무런 상금도…밑졌습니다.》

《뭐?? 밑졌어?!》

지배인은 눈이 둥굴해졌다.

《예, 손해액이 막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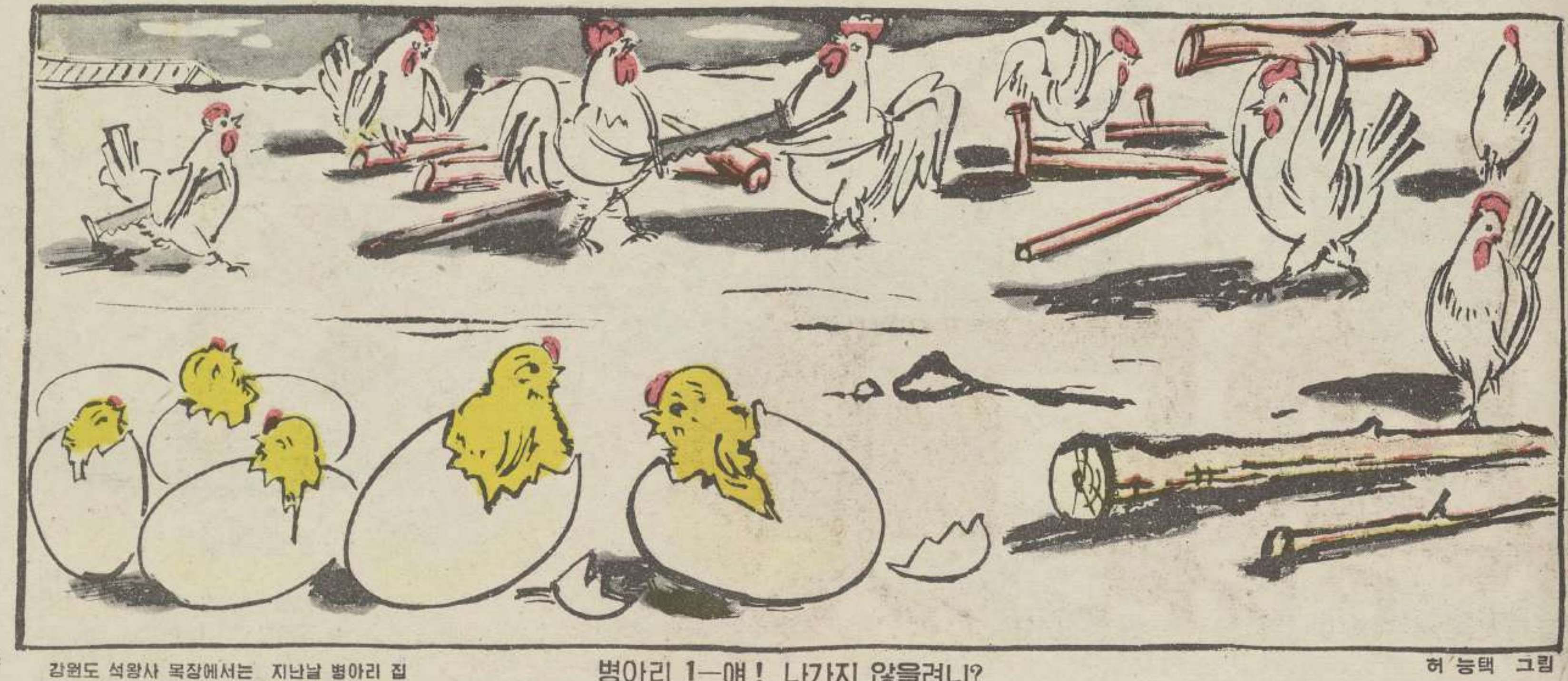
《전년보다 주생산물인 돼지 고기의 원가는 160%, 옥수수는 137%나 먹었는데 이렇게 원가가 생산액보다도 더 먹었기 때문에…》

《아이구! 밥 먹고 죽벌이를 했구나!》

지배인은 벌떡 일어섰다가 맥없이 펄썩 주저 앉았다.

리 윤봉

병아리 집이 건설된다



강원도 석왕사 목장에서는 지난날 병아리 집을 제때에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병아리를 죽인 사실이 있다.

병아리 1—야! 나가지 않을려니?
병아리 2—그 집이 다 되기 전에 나가면 엄마 한테 욕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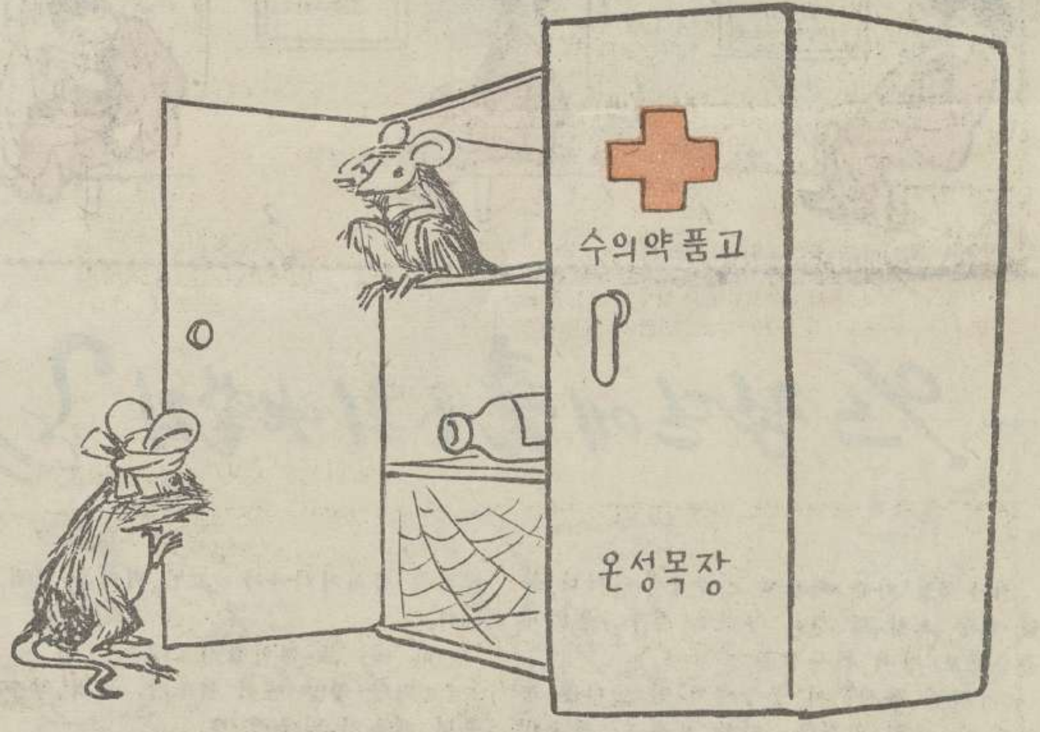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돈뭉치로서 자란 돼지

국영 온성 목장에서는 일부 지도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육류 생산에서 원가 계획을 406%로 초과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다.

—돈 뭉치로 자랐다면서 왜 꼴이 그 모양인가?
—먹기라도 하고 여위였으면야 한이 없겠네

홍 종호 그림



—제—기…감기약쯤은 있을줄 알았는데…

홍 종호 그림

지도 일'군들의 낡은 태도는 선진 작업을 방해한다

함북 어랑군 팔경대리 정 의준 그림

일부 학교들에서는 시간표를 작성하지 않고 피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

—얘야 이걸 하루에 다 배우느냐?
—어느걸 하는지 가 보아야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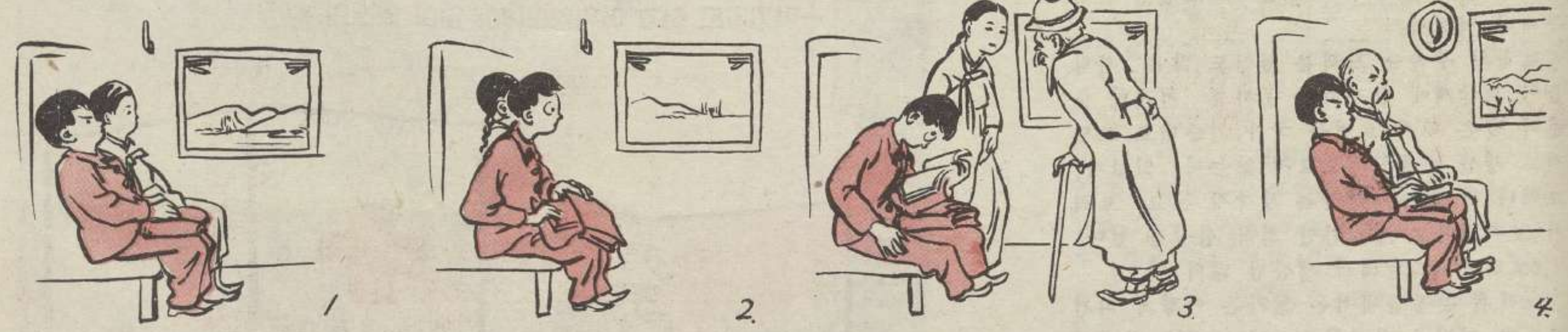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송 시엽 그림

—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도 모르겠다.

렬차에서

송 용남 그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지난 2월 하순 어느날 정주군 나머리 농업 협동 조합 탁 경복 농민은 정주 농기계 공장으로 가서 기사장을 만났다.

《기사장 동지! 이 공장에서 만든 다른 농기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려도 좋은지요?》

《아—, 얘기 하시오 서슴치 마시고,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터이니까요!》

《고속도 분쇄기 이'발이 서로 부딪치는가 하면 베아링이 인차 깨지고 매초 절단기의 치차도 잘 맞물리지 않아서요…》

《예, 예, 그 뿐인가요?》

《우리 동무들이 매초 절단기의 작두날을 나무 칼날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무 칼날이라구요?》

《인차 무뎌서 하루 서너번 숫돌에 갈아 써야 하니까요!》

기사장은 마치 바늘 방석에나 앉은 듯이 엉치를 들석거리다가 고만 머리를 벅벅 긁는다.

《예, 예, 그 뿐이겠지요!》

《그리구 영양 단지 제조기, 축력 양수기, 축력 제초기, 달구지…》

《아니, 아니, 아, 아, 알만합니다》하고 기사장은 고만 벌떡 일어 서서

《동지가 제기하는 의견을 전부 접수합니다. 농기계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노력합시다.》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이런 의견을 듣고 나면 기사장은 으례히 그의 질 제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그 때마다

(우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농기계를 형식적으로 설계한 일'군들과 이를 내려 먹이는 도 산업 관리국 일부 동무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단 말이야)하는 자체 《결론》으로 자기를 어루만졌다.

이 《결론》은 지배인의 머리 속에서도 구름 같이 떠 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이 공장에 와서 간부들의 사업 방법을 살펴 본다면 농기계의 질이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차 알 수 있다.

계획 통계원이 작업 지시표를 만들어서 매 직장에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나 지배인과 기사장은 이에 대하여 아랑곳 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자체 사업 계획도 없이 바람이 부는대로 동에 펏덕 서에 펏덕, 더우기 치수가 틀리는 낡은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저렇게 하라》고 걷잡을 수 없는 《지도》를 하니 로동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못잡는다.

선반공들이 모타 쁘리를 깎을 때에도 지배인은 49 미리로, 기사장은 48 미리, 브리가다장은 50 미리로 각각 지시한다. 그러니 부속품들은 각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의 후과는 기계의 조립시에 나타난다.

기계의 조립이 곤난에 봉착할 때마다 기사장은 마치로 치고 때리고, 손으로 밀고 당기고, 발길로 차면서 뚜드려 만드니 농기계의 질이 좋을 리는 만무한 일!

피 호주

판매원—이걸 찾는 손님이 방금 있었는데 어딜 갔나?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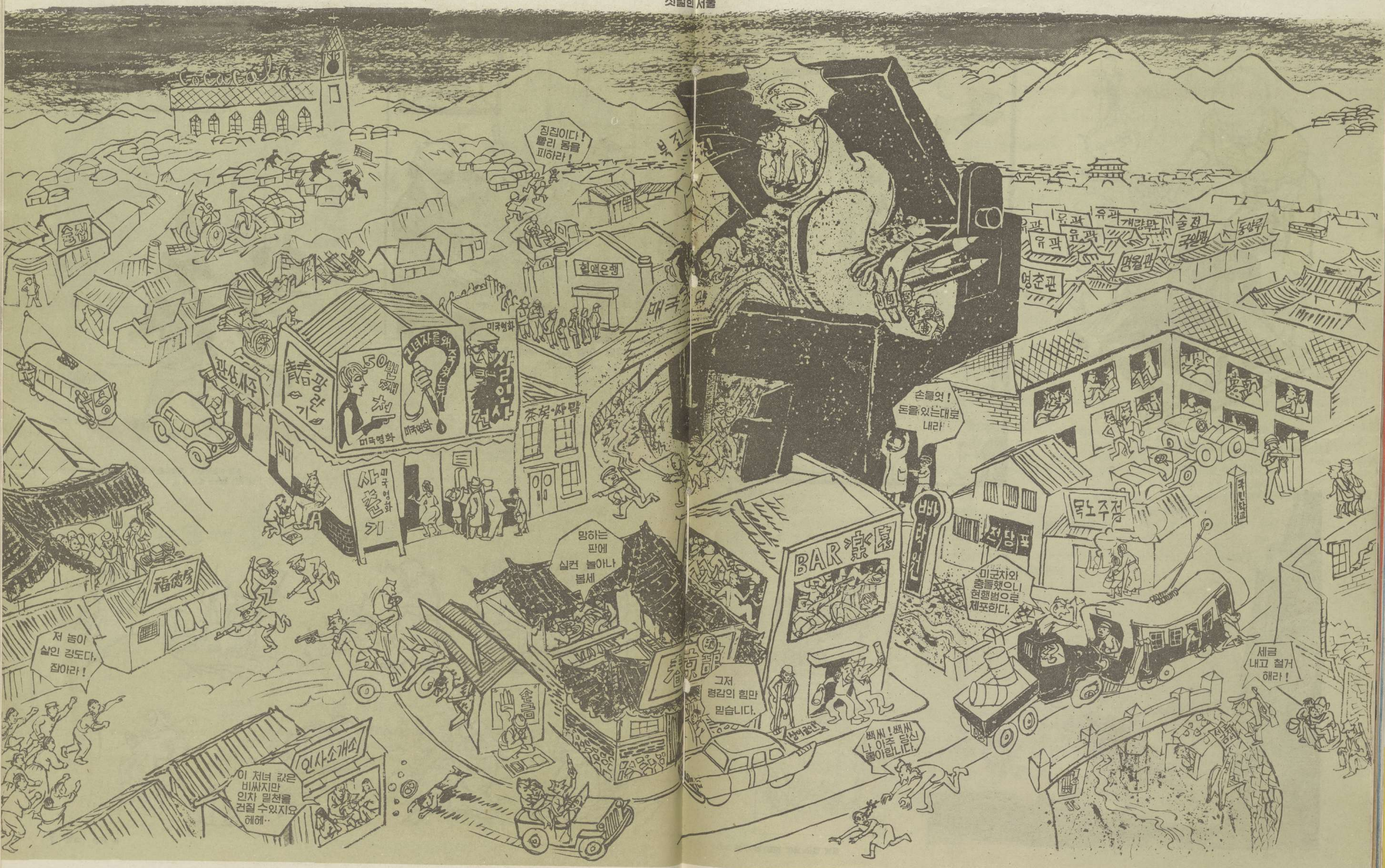
알아 보기 힘든 운임표

평북 룡천군 전진 농업 협동 조합 리 성식 그림

어떤 역들에서는 운임표를 너무 높이 붙여 손님들이 알아 보기 힘들게 하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짓밟힌 서울



Coca-Cola
징집이다! 빨리 몸을 피하라!
북진 북진!
술집
혈액은행
매국조약
미국영화
그녀자를 왜 죽였느냐
미국영화
살인 전사
50번째 처
미국영화
청춘 광란기
관상.사주
茶房·싸롱
사춘기 미국영화
유곽
유곽
유곽
유곽
개량목노
술집
국일관
동양루
명월관
영춘관
손들엇! 돈을 있는대로 내라
福德房
저 놈이 살인 강도다, 잡아라!
망하는 판에 실컷 놀아나 봅세
BAR 東京
빠라다인
전당포
목노주점
국민학교
미군차와 충돌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세금 내고 철거 해라!
그저 령감의 힘만 믿습니다.
손금
인사소개소
이 처녀 값은 비싸지만 인차 일천을 건질 수있지요 헤헤…
쎄씨! 쎄씨 나 아주 당신 좋아합니다.

박 승히 그림

흉기를 간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남조선 경제를 더욱 철저하게 략탈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또다시 《한미 투자 보장 협정》을 조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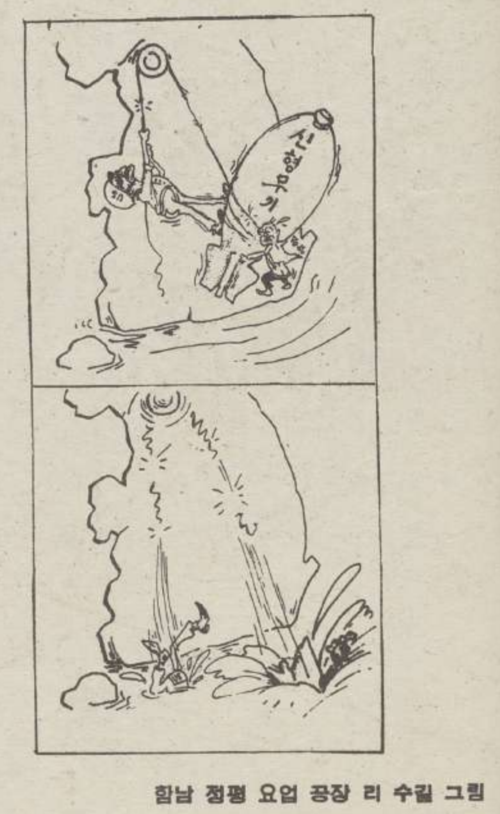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남조선의 육고간

백 인균 그림

자폭 행동

 백 인균 그림



함남 정평 요업 공장 리 수길 그림

《투표 훈련》

홍 길남

7, 8명의 로인들을 모아 놓고는 리 승만의 《자유당》《선전 요원》이란 작자가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다.

《자, 이제부터 투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시유》

제 아비벌 되는 사람 보구두 《어이》 혹은 《여봐》하며 어깨를 으스대던 패들이 오늘은 제법 《할아버지》《할머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들볶고 있었다.

《자아, 이게 투표집니다. 첫 꼭지에 적힌 것은 민주당패인데 이놈은 죄가 많아서 벌써 천당에서 호출해 갔으니 두번째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로인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양으로 어떨떨해 서 있었다.

《두번째에다 동그라미를》

《선전 요원》은 또 재촉을 했다.

《이건 누구요?》

로인이 물었다.

《리 승만 대통령이요, 어쨌든 거게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다.》

로인은 《선전 요원》의 눈초리 앞에서 동그라미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한바퀴 돌아 가면서 《훈련》을 했다.

《선전 요원》은 만족하다는 듯이 히죽이 웃고 나서 다시 한바탕 떠들었다.

《자 이번에는 투표지를 받아 혼자서 아까처럼 동그라미를 쳐서 이 통안에 집어 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 도까비 놀음을 또 하였다.

한바퀴 돌아간 뒤 《선전 요원》은 통을 뒤집고 《투표지》를 쏟았다.

순간 《선전 요원》은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질렀다.

《왜들 이렇게 하는거야! 온통 송장표를 만들 작정이냐》

《아거 송장표라니 리 승만이가 죽었나요?》

한 로인이 뒤에서 물었다.

《뭐이, 죽은 민주당패에게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야》

《아니 민주당인지 자유당인지 몰라두 두번째에다 동그라미를 치라구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첫번째에다 쳤는가 말이야》

이렇게 옥신 각신 소란이 일어난 뒤 《선전 요원》은 로인을 앞에 불러 다시 한번 해보라고 호통을 쳤다.

로인은 《투표지》를 받더니 서슴 없이 《두번째》에다 동그라미를 쳤다.

《아니 령감 투표지는 왜 꺼꾸로 놓고 야단이야》

《허, 온통 꺼꾸로 된 세상인데 어느게 바르구 어느게 꺼꾸론지 어떻게 알우 원》

로인이 투덜거리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이 벌어졌다.

《선전 요원》은 또 떠버리기 시작했다.

《꺼꾸로 쥐면 첫째번, 바루 쥐면 둘째번》《꺼꾸로 둘째는 송장, 바로 첫째는 송장》 이런 식으로 《투표지》를 들고 연설을 시작했다.

한참 후에 또 한 바퀴 돌면서 《투표 훈련》을 하였다.

헌데 이번에도 리 승만을 송장으로 만든 표가 절반이나 되였다.

《선거일이 래일인데 이게 웬 일이냐, 똑똑히들 들어라… 령감 알겠어》

이제는 화가 난다는 듯이 반말을 턱턱 써가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어느게 송장인지 비슷비슷한데 알 수 없수다그려.》

《아니 그만큼 말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엉, 첫째가 송장이란 말이야》

《이거 송장이란 말이죠.》

《뭐 이 자식이, 그건 리 대통령이야, 송장은 이쪽이란 말이야》

《선전 요원》은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질렀다.

《거 어느 쪽이면 어떻소, 어차피 당신네 맘대루 될거 아니유, 그게 그건데 괜히 그러시우》

한 로인이 이렇게 말하자 또 한 사람은 이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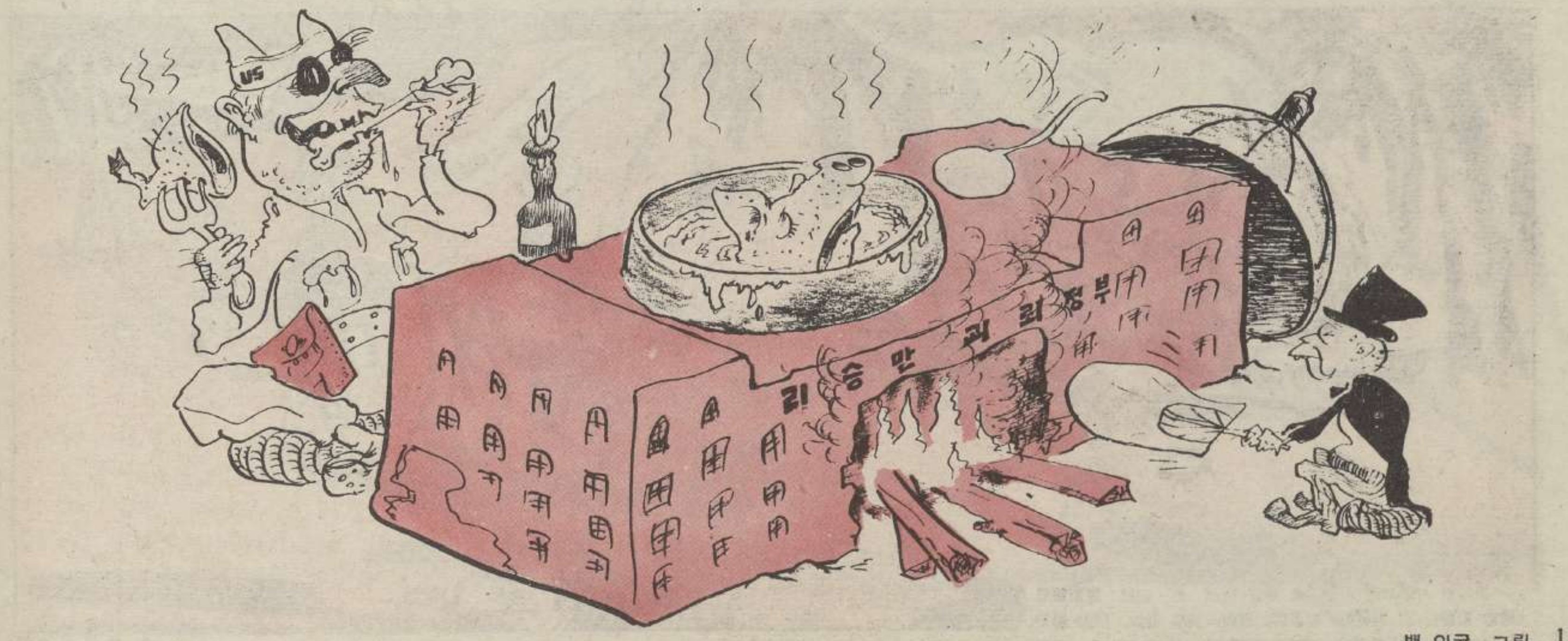
《거 추운데 송장 놀음은 이만 합시다.》

이 말에 모두들 《옳소》 하고는 뿔뿔이 흩어졌다.

로인은 발'길을 돌리면서 《그 송장이 그 송장인데 원참》하고 침을 뱉고는 그래도 《선전 요원》을 골려 준 것이 만족한지 픽 웃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송장 놀음을 하는걸 보니 이젠 정말 다 됐군》

도적놈의 부뚜막



백 인균 그림

《세계특등》

리 철희

미국에는 〈직업을 구함〉이라고 쓴 합판을 목에 걸고 거리에 나선 실업자가 인구 42명 중에 한 명이라고 세계 제일이라 자랑하나 그 〈세계 제일〉을 10배나 릉가한 곳이 있으니 그것은 분명히 〈세계 특등〉입에 틀림 없다. 그곳은 바로 미군 강점하의 남조선이다. 거기서는 인구의 28%가 일'자리가 없으며 로동 능력을 가진 사람의 56,3%가 일할 곳이 없다. 인구 4명 중 한 사람은 벌지 못하는 것이다 《사지가 튼튼한 사람이 일을 안하고 놀고 먹어?》 하는 훈계는 이곳에서는 통용 안된다. 일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며,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놀고 못먹는 판이다.

도합 660만의 실업자—웬만치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만큼한 이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늘어서면 부산—신의주 사이를 12렬로 덮을 수 있다니 끔찍한 일—.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아니 이게 무슨 줄을 이렇게 처 섰소? 구제 물자라도 주나요?》

중년의 실업자가 〈농업 은행〉 앞에서부터 천 여메터 늘어선 사람들을 보고 묻는다.

《여보! 도적놈이 정치하는 세상에도 구제 물자가 있소? 이 분들은 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낡은 학생복에 맨 머리 바람인 젊은이가 대'구한다.

《아니 일'자리가 있다구!… 그러게 어제 밤 꿈'자리가 좋더니…》

중년의 실업자가 눈을 빛내며 대렬에 끼이려 든다.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소?》

《헤헤헤 대학이라니…학교나 다녀 봤으면 이렇겠소 난 소학교 문앞에도 못가 봤다오》

《여보! 은행원 몇 사람 쓰는데 679명의 대학, 상업 고등 학교 출신이 들어 왔는데 소학교도 못 나온 당신이 기뻐한담 말이오?》

《예?》 중년의 실업자는 눈이 둥그래지더니 대'구도 안하고 초연히 사라졌다.

재작년에는 대학 졸업생의 90%가 취직을 못했고 지난 해에는 서울 시내 대학 졸업생 중에서 취직 한 자가 겨우 7%! 숫한 공납금 무느라 10 여년 《혈액 은행》 단골 손님도 되였건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대학 졸업생이 통통 멜 직장도 없는데 로동자들은 더욱 한심한 형편일 수 밖에…

까마귀와 산 송장

백 인균 그림

《반공》 각설이

미제의 사촉하에 지난 2월 중순 이래 리 승만 괴뢰들의 《특별 사절단》이 비률빈, 말라이, 타이, 남부 월남, 대만 등지의 자기 《동료》들을 찾아 헤매아 다니면서 《반공 동맹》 조작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바 미제의 어떠한 술책도 리 승만 괴뢰 도당의 발광도 림종에 처한 괴뢰 정부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다.

허 능택 그림

도지사의 봉변

김 문섭

《오늘 학생들을 모두다 등교시키란 말이야, 오늘이 일요일이라, 그래도 학생 녀석들은 그냥 놀려서는 안돼!》

수화기를 통해 들려 왔지만 리 승만의 목소리는 울상이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쩍하면 동맹휴학이니 무슨 항의니 하고 나서는 놈들인데… 그냥 놀리면 또 무슨 짓까지 하며 나설지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오 임근은 전화통 앞에서 허리까지 굽실거렸다.

《그래야 해, 학생 녀석들이 엉뚱한 짓을 하며 나서는 데는 더 질색이야, 나는 경북도 지사를 믿어 내 지시를 원만히 집행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야》

리 승만의 이 말에 오 임근은 신이 났다.

《대통령 각하! 오늘 일은 저에게 모두다 맡겨 주십시오, 틀림 없이 성사할 것이오니…》

수화기를 놓고 오 임근은 도 《문교 사회 국장》을 제 집에 불렀다. 리 승만의 믿어하던 말소리가 그대로 머리 속으로 돌아 그는 2월 28일 명절도 아닌 이 날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다.

×

《국장! 대통령께서 친히 분부한 일이니 학생들을 지금 곧 등교시켜야 하겠소》

오 임근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은 《문교 사회 국장》 앞을 유유히 거닐면서 말하였다.

《등교의 리유는 무어라고 할가요?》

《국장》은 오 임근을 빤히 처다 보며 묻는 것이다. 이것은 오 임근이도 미처 생각 못한 일이다.

《등교 리유라…》

오 임근이는 눈을 슬며시 감고 생각했다. 그러드니 이윽고 무릎을 툭 치며

《됐소! 졸업식 련습이라든가, 운동회 련습이 있다고 하오. 그러면 모두다 모일 것이 아니겠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장》의 이 말에 《도지사》는 좋아서 입이 헤벌려졌다. 《국장》은 전화로서 대구시내 각 고등 학교들에 련락을 하기에 분주하였다. 오 임근은 휘파람을 불며돌아 갔다.

×

몇 시간이 지나자 큰길 멀리에 학생들의 대렬이 나타났다. 그들은

《경북 고등 학교》와 《대구 고등 학교》를 비롯한 대구시 내 《고등 학교》 학생들이였다.

그를 바라다 보고 섰던 오 임근이는 너무도 유쾌하여 《문교 사회 국장》의 등을 툭 치며

《국장! 내 지혜로운 고안을 오늘에야 알겠지.》

《과연 명안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배를 듭시다.》

그들은 얼마 전에 차려 놓은 술상에 마주 앉으면서 《축배》를 들었다.

《이 통쾌한 사실을 나는 곧 경무대에 보고해야 하겠소.》

오 임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전화통으로 간다. 밖에서는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 온다.

《경무대입니까? 저 경북도 지사 올시다. 분부대로 일은 잘 되여…》

그러자 유리창을 깨고 밖에서 돌맹이가 날아 들어 술상에 와서 떨어진다. 오 임근은 놀래여 그만 멍해졌다.

《도지사 각하! 학생들의 시위…》

창 밖을 내다 보던 《국장》은 그만 놀래여 더 말을 계속하지 못한다. 오 임근이는 황접히 창가로 뛰여 갔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곤봉을 가지고 학생들의 주먹과 싸우고 있다.

학생들은 일요일에 불법 등교하라고 한 《당국》의 《조치》를 반대하여 웨치는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를 다오!》

《민주주의를 다오!》

《우리 청년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극악한 미군 범죄자들을 처단하라!》

1천 200 여명 학생들의 웨침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오 임근은 뜻하지 않은 봉변에 어쩔줄 몰랐다.

《국장!》

그러나 《국장》은 벌써 사라진지 오래였다.

《국장!, 국장!》

그는 이렇게 부르며 뒤'문으로 빠져 뛰였다. 신도 잃고 맨 발로서….

거센 불'길

송 용남 그림

번영

로 철

미국 로동 장관 미첼은 간이 콩알만 해서 아이젠하워 앞에 서 있었다.

《글쎄, 여보 로동 장관, 좀 생각해 보우, 당신 같은 등신이 또 어데 있단 말이요? 왜 하필 이런 문건을 세상에 발표했느냐 말요, 앙?》

《예, 그저 제가 미욱한 탓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암, 죽어 마땅하구 말구! 자, 뭐라구 썼나 좀 읽어 보란 말요! 〈1952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의 인구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겨우 1%가 장성하였을 뿐이며 강철 같은 기간 공업 부문의 생산은 작년 1년간에 근 20%나 축감되였다. 새로운 공황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 시세가 금년 1월 중에 계속 폭락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후 네번째의 새로운 경기 후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흥, 잘두 예측했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저 제가…》

《사실은 사실이지만, 여보 장관, 때가 어떤 때냐 말요, 응? 쏘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 국가〉들의 경제가 무서운 속도루 발전을 하구 심지어는 우리가 30년 내에는 다시 일어 서지 못하도록 모조리 마사 놓은 북조선의 경제 같은 것은 3년 만에 다시 일어 서서 아, 작년에는 53%나 공업을 더 발전시키고 있지 않소! 그런 바람에 전 세계가 미국을 제 2등 국이라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좀 약과라 치더라두 우리 동맹국들까지 〈파파 늙은 양키〉니 〈썩은냄새 나는 아메리카〉니 하구 마구들 비웃어 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 아니냐 말요, 앙? 당신은 왜 내가 년초부터 국회요, 신문 기자 회견이요, 무슨 구락부 년차 회의요 하구 분주히 뛰여 다니면서 〈1960년은 미국 력사상 가장 번영하는 해로 될 것이다〉라고 하루에두 몇번씩 성명을 하구 있는지 좀 짐작이나 하시우, 앙?》

《예, 짐작하다 뿐이겠습니까, 각하! 더우기 금년 가을에는 대통령 선거전두 있구… 백성들로 하여금 미국이 영원히 〈번영〉하구 있다는 환상을 계속 가지도록 바싹 더 선전하여야 하는 때인줄은 잘 알고 있사옵는데, 아, 글쎄 그 고약하기 짝이 없는 신문 기자 녀석들이 〈왜 로동성은 일년에 한번씩 발표하기루 되여 있는 〈미국 경제 및 로동 실태 보고〉를 아직두 안 발표하고 있느냐〉 〈뭐 꺼림칙한게 있느냐〉 구 성가시게 야단법석치는 바람에 그만 세상에 그 문건을…》

〈에익, 이 미욱한 사람 같으니…!〉

아이젠하워는 뒤'짐을 지고 방안을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였다. 속이 뒤집혀서 몹시 답답한 모양이다.

《로동 장관, 이렇게 하시오. 대대적인 선전 깜빠니야를 조직하란 말요. 신문 기자들을 동원시키시오. 텔레비죤두 영화두 다 동원해서 〈번영〉에 대하여 선전…》

《그런데 대통령 각하! 그 기자 녀석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두 이 로동 장관의 말을 믿어 주어야지 말이지요…》

미첼의 탄식 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다.

《여보, 미스 미첼! 장관을 해먹으려면 좀 꾀를 부릴 줄 알란 말요. 이렇게 하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나서질 말구 믿어 줄만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번영〉을 선전하게…》

《어데 그럴 녀석이 있겠습니까, 모두 〈빈궁의 귀신단지〉라구 우리 정부에 욕사발을 퍼붓고 있는 판인데…》

《여보 장관, 글쎄 좀 용기를 내라니까! 오래'동안 실업자로 있다가 금년에 우리가 로케트 무기 공업에 더 투자하는 통에 새로 취직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들을 발동시키시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려 줄게란 말요.》

《하아…이젠 알겠습니다 각하! 참 영명하신 고안이 올시다. 각하! 하긴 그런 녀석이 몇명은 되지 않지만 그들이야 말루 우리의 〈번영〉을 틀림 없이 찬송해 주리라구…히히히…》

《호호호… 그러니 당장 그들을 찾아서 《좌담회 같은 걸 하나 조직하구 거기에서 나온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서, 라지오에서 떠들게 하란 말요! 알겠소?》

《옛!》

그리하여 불야불야 로동 장관 주최하에 《생생한 자료》를 얻어 내기 위한 좌담회가 소집되여 웅기 중기 몇명의 소위 《신 취업자》들이 모여 들었다.

《그럼 어데 웰톤씨, 당신부터 말 좀 해보시우, 몇년간 실업을 하고 계셨소?》

《7년간 올시다.》

《7년간… 그래 마침내 취직을 하게 되였으니 이것이야말루 우리 미국의 《번영》의 징조가 아니겠소! 그래 어델 취직했소?》

《네, 기수루 취직을 했습죠.》

《기수라니, 아니 기'발을 들구 다니는 기수말요?》

《네, 로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반대해서 요즘에 시위가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때마다 정부에서 조직하는 파업 파괴 시위 때에 기'발을 들구 나가는 기수로…》

《에익! 입을 닥치시오!》

미첼은 진땀을 뺐다.

《다음 사람, 당신은 〈번영〉의 덕분에 어떤 새 직업을 얻게 되셨소?》

《예, 유리 조각 장사를 하게 됐습죠.》

《유리 조각 장사?》

《예, 검정 칠을 한 유리 조각 말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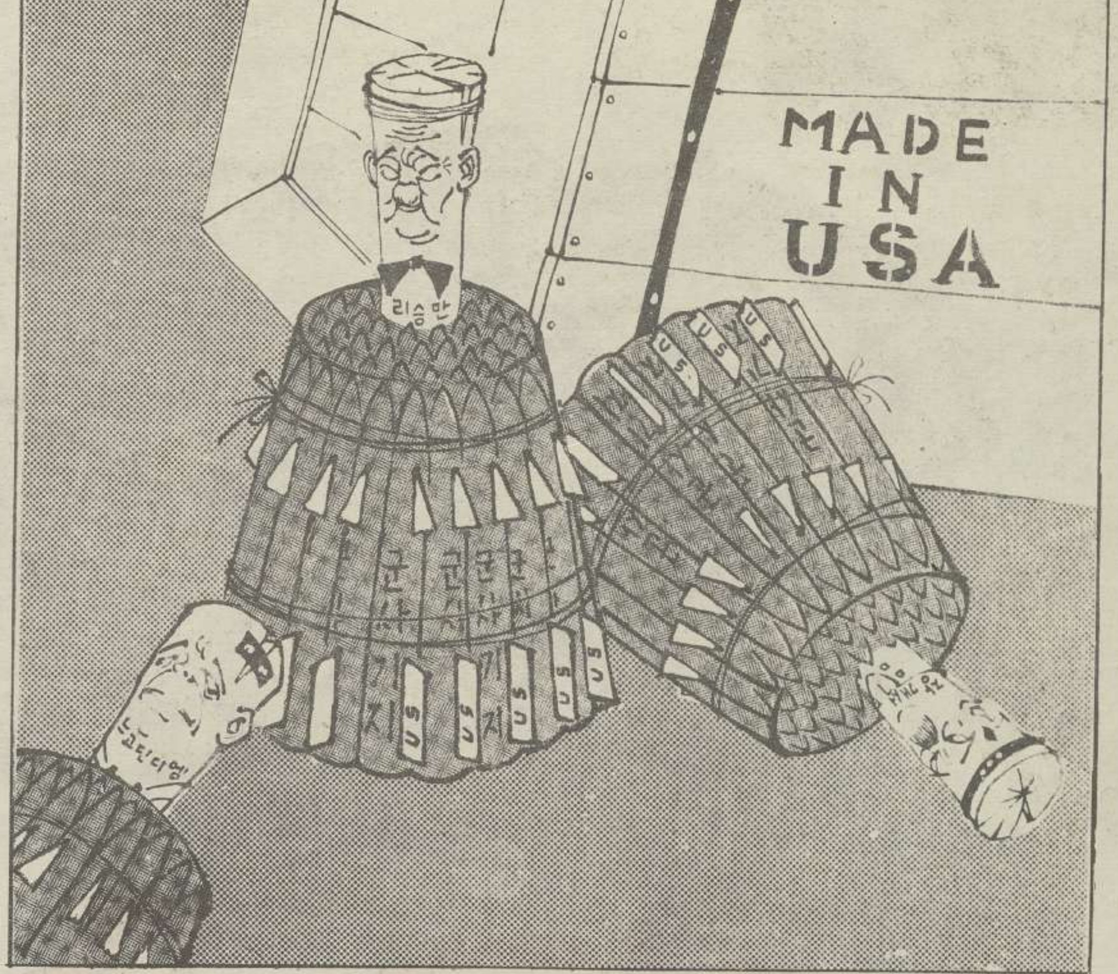
《검정 칠을 한거라니 아니, 그건 뭐에 쓰는 거요?》

《예, 해가 달에 가리우는 구일식 때 쓰는거지요, 그때가 되면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 해를 바라 보느라구 검정 유리 조각을 많이 요구하지요.》

《아이구, 하느님 맙소서…》

로동 장관 미첼은 입을 벌리구 탄식만 할 뿐이였다.

특제품 《수류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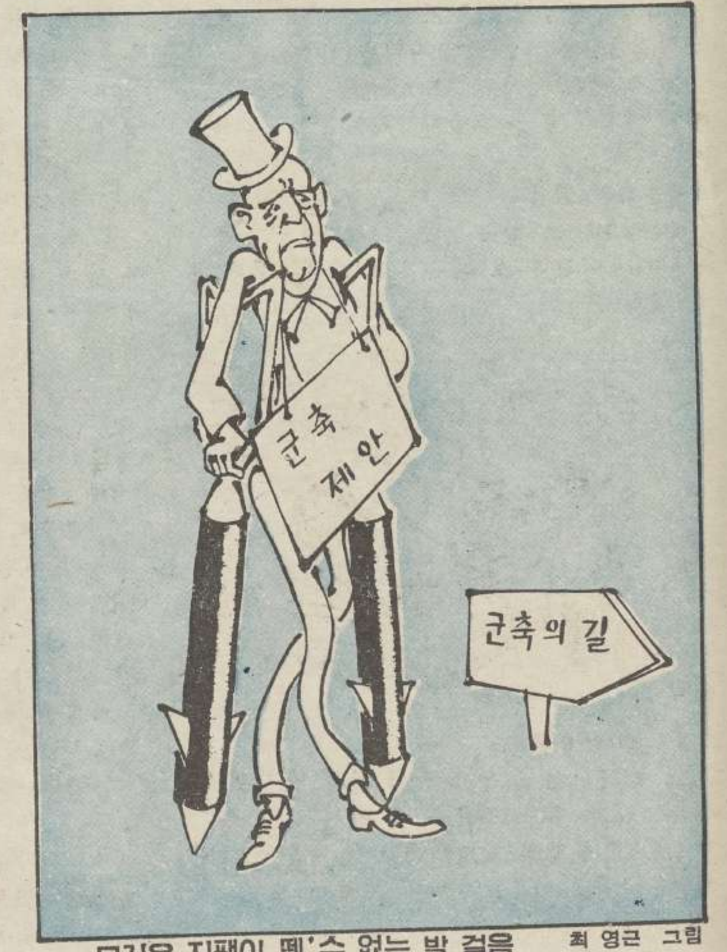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내릴 자리가 없다

아이젠하워는 남미 방문에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세찬 반대와 항의에 부닥쳤다. 송 시엽 그림

류마치스 환자 허터



무거운 지팡이 뗄'수 없는 발 걸음 최 영근 그림

미국제 비둘기

홍 종호 그림

위험한 발'길

서독 복수주의자들은 자기 나라가 《20세기에 있어서 군사 련습을 하기에는 너무나 좁다》고 떠들면서 국경 밖으로 기여 나가려 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302
발행 1960. 3. 20 (값 40전)

8034
ХВАЛЬСАЛЬ